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가 23일(월)~26(목)까지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있습니다.
- 세례문답과 입교 준비를 위한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제직연수회가 오늘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정기당회가 오늘 제직연수회 후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정기제직회가 다음 주일(29일) 오후에 있습니다.
- 사랑방공동체 35주년을 맞아 찬양시를 공모합니다. 사랑방공동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나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표현하는 내용들로서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시를 공모합니다. 응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29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길 바라며,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김명호 집사(무림사랑방) 김연수 집사(무림사랑방) 한혜정 집사(임마누엘사랑방)
이어직 집사(젊은이사랑방) 임종업 청년(늘푸른사랑방, 멋쟁이학교 교사)
김신애 선생(미국)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채영대 집사 · 장지영 집사 가정 (감사)
엄원식 · 박현주 집사 가정 (유민 생일 감사)

강단을 꽂으로 :
수일 교회 종합자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 정부의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방교회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원로목사/ 정태일 담임목사/ 최성필

부 목사/ 이원영 권혁신 이동기 협동목사/ 박광희

장로/ 흥상성 김영식 홍정길 안상호 은퇴장로/ 이용신

전도사/ 해 은 권재만 정재훈 장영미 정다운 최기찬 이어진

선교사/ 조남희 김하진 노효중 김희정 윤연섭 이양숙 최장수 허윤정 임채정 손희정

제 36 - 38호
2019년 9월 2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소예언서, 참 쉽죠?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어야 하며 각각의 공간은 그 목적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벽과 바닥의 재질을 가지거나 다른 창을 달고 공간의 크기도 다르게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각 책들은 방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이 모여 살기 편안한 집이 되듯 성경 또한 각각의 책들이 모여 한권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성서일기를 하고 있는 소예언서들도 대예언서의 뒤에 위치하여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소예언서의 책들을 보았을 때 책들의 순서나 내용이 쉽게 와 닿지 않습니다. 일단 권수가 많기도 하고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책이 나뉘어져 있지만 시대를 기준으로 나뉘어져있지도 않습니다. 대상 국가도 뒤죽박죽인 느낌이어서 어떤 기준으로 나뉘었는지 혼동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짧은 글들을 한곳에 모았다고 보기에는 언제나 소예언서들은 하나의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소예언서를 편집하여 구약성경에 넣었던 공동체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텐데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소예언서의 순서는 현재 유대인들이 보는 마소라 사본과 순서가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은 다른 순서를 가지고 있고 세례요한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큐란공동체가 기록한 순서 또한 다릅니다. 이 각 공동체의 소예언서의 순서는 각 공동체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그에 따른 편집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예언서는 각 책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가장 익숙한 것이 요나가 아닐까 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언의 대상은 니느웨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요나와 하나님과의 긴장관계입니다. 나훔서를 보면 또 니느웨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언가와 하나님과의 긴장관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박국이나 미가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가장 안타까운 예언가로서 온몸으로 예언의 내용을 살아냅니다. 하지만 말하기에서는 예언가가 행위가 아닌 말씀을 통해 경고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책을 모았는지 언뜻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소예언서를 시대적 순서대로 배열해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된 남북왕국시절에는 6권, 유다시절 3권, 포로기 이후의 3권으로 비중을 달

선교와 섬김

리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는 여로보암 2세대의 예언가인데 예루살렘 멀망을 다룬 오바댜보다 뒤에 있으니 시대순서대로 편집했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하거나 구성 할 때 액자식 구성을 하거나 계단식 구성을 하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소예언서들을 배열해 보고 또한 주제를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 A 호세아서 : 언약 위반과 하나님의 사랑
- B 요엘서 : 포로의 귀환과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에서 열국의 심판
- C 아모스서 : 여호와의 날, 언약의 저주, 하나님의 공의, 남은자
- D 오바댜서 : 애동에 대한 심판 -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 E 요나서 : 니느웨에 관한 말씀
- F 미가서 :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 실현, 메시아, 남은자의 죄 용서, 언약 성취
- E' 나훔서 : 니느웨에 관한 말씀
- D' 하박국서 : 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 - 공의의 하나님
- C' 스바냐서 : 여호와의 날, 언약의 저주, 하나님의 공의, 남은자
- B' 학개서와 스가랴서 :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성전 재건, 시온에서 열국의 심판
- A' 말라기서 : 언약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볼 때 미가서가 그 중심에 들어가 있고

소예언서라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A]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B]에는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C]에 대해 이야기하며 열방에 대한 심판[D]과 그 당대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던 강대국[E]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각 예언서가 강조하는 모든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 가장 핵심에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공의와 인애와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그 주제를 점점 확장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예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넘쳐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권재만 전도사

가을이 ...

한주간의 말씀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 사도행전 10장 19~20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미가서 4 : 1 - 5

제목 :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인도 : 최성필 목사

기도 : 장지영 권사

찬송 : 413 470 438 322

1. 내용관찰(What)

1-2 세상 끝 날에 민족들이 주님께로 나올 것에 대한 예언

3-4 주님께서 이루실 평화에 대한 약속

5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2. 내용의 의미(Why)

1) 주님의 통치는 세상 끝 날에 완성된다<1절> - 1절의 ‘그 날’은 주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질 세상 끝 날을 의미한다.

2) 주님의 통치는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2>.

3) 주님의 통치는 평화를 가져온다<3,4> - 3절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누리는 평화라면, 4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리는 평화이다.

3. 의미의 적용(How)

전체적용)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만 순종하자<5>.

-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다스림)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만 순종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2>.

- 나는, 우리 가정은, 신양공동체인 교회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점검하자.

성서일기

참 빠르다. 벌써 가을이네. 9월도 얼마 안 남았네. 저마다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9월에 들어서자마자 추석이 있어 저마다 가을을 분주하게 시작한 것 같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여 가을의 풍성함을 느낀 지난주였다. 이번 주에는 가을 하늘이 청명하기도 하지만, 뭉개구름이 하늘을 수놓은 것처럼 너무 예쁘다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도 많이 보였다.

이곳 무림리에는 포도 익은 향기가 이곳저곳에 광릉수목원 가는 길 가판대에서도 향기가 그윽하다.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들판과 과일나무들은 저마다 예쁜 색깔과 단맛으로 탐스럽게 익어간다.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자연도 협조하는 것 같다.

아마도 오늘이 아닐까 싶지만 아래 지방 남부는 17호 타파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니, 농부들의 걱정이 또 많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의 밥상 물가도 오를 테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많은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태풍이 지나면 가을도 또 한 발자국 성큼 다가오겠지. 먹거리로 풍성해 가는 이 가을쯤에 나를 돌아켜 본다. 이 가을에 무엇으로 열매를 익히고 예쁘게 색깔을 내어 볼까 잠시 생각해 본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세운 계획을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돌려 드려야 하나 묵상에 잠긴다.

이 가을 농부이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돌아켜 보면서 여물지 못한 열매를 가을 햇살에 익히고 예쁘게 색깔을 내어 보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불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맷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요한복음 1: 1-2 절>

이 말씀이 더욱 마음에 와닿는다. 농부이신 하나님께 어떠한 열매를 맺어 드릴 것인지 남은 3개월 하나님께 무릎 꿇어 보렵니다.

이 가을에 불청객인 알려지가 와 힘들지만 그래도 가을이 좋아요.

한마음사랑방 최갑정 집사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103 : 1-5 인도자

482 다함께

인도자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양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8 : 1-2 인도자

249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사도행전 10 : 17-23a, 44-48 설교자

성경낭독

183 꿈꾸는 사랑방

성가대 찬양
설교

“가이사랴로 가는 길” 최성필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19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돋는 이들 안내 : 황창영 이종하 / 병원위원 : 권혁수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인도자 : 최성필목사
설교자 : 최성필목사

공동기도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가이사랴로 가는 길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의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넬료는 환상 중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욥바로 사람들을 보냅니다<1-8>.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난 후에 <17-23a>, 그들을 따라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23b-43>. 그 결과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고넬료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44-48>.

성령께서 이루어신 일. 오늘 본문의 모든 일들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결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성기는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일상에서 얼마든지 성령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최성필 목사 / 기도: 박현주 집사

꾸러기학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날씨만 주셔서 기분도 좋고, 분위기도 한 층 활기칩니다. 요즘 이 좋은 날씨에 꾸러기에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벌레입니다. 배추를 심었는데 벌레들이 매일 같이 잡아도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물도 열심히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쑥쑥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가을이면 꾸러기가 향상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포도따기입니다. 교회 앞 포도농장에서 포도를 직접 먹고, 땀은 시간을 가집니다. 포도의 변화, 향, 맛 등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열심히 포도도 따고, 맛있는 포도도 나눠 먹는 시간이 모두 웃음 가득한 기쁜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 관련 책들을 읽어주며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중남미문화원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오전에는 장육진미술관에서 작품도 보고 신나게 논 다음에 중남미문화원에 입장장을 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표현해도 조각과 가면 등을 이용해 만드는 것이 우리와 많이 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조각들과 그림 그리고 물건 등 재밌는 것도 많았습니다. 너무 예쁜 공원도 너무 좋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 놀기도 했습니다. 간식으로 타코를 먹었는데 평소에 먹지 못한 맛이지만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이젠 무림리에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몇몇 아이들의 코는 훌쩍이고, 옷도 길어졌습니다. 교사도 추위를 피할 수는 없죠. 추위를 가장 많이 타는 저를 시작으로 교무실에도 난방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어린이 예배는 다소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학년별 여행과 추석을 정신없이 보냈는지 아이들이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고 어려운 찬양이었는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어진 전도사님께서 전

달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마태복음 9장의 한 부분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과 속이 다른 크리스천도 많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아주 일관적이고, 속 생각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일절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어린이학교 아이들이 보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교사와 학부모님들 또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도보여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우리 어린이 아이들은 아픈 아이들이 속속히 생기고, 도보여행 때 아플 예정이라고 예고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은 도보여행이 많이 힘든가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 속에서도 즐겁고 성취감이 느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어린이학교 도보여행을 위하여 권재만 선생님과 조향민 선생님께서 제주도로 답사를 가십니다. 선생님들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답사 때와 도보여행을 갈 때 날씨가 좋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사 : 김선희 >

멋쟁이학교

이번주부터는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쌀쌀해져서, 멋쟁이들의 옷차림도 길고 두꺼워졌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오면서 코를 훌쩍이거나 기침을 하는 멋쟁이들도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즐거워 보이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목요일에는 지난주에 비가 와서 미뤄두었던, 입양도로청소를 했습니다. 강렬한 햇빛을 받으며 무림2리부터 축석까지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청소했습니다. 이렇게 멋쟁이들이 봉사하는 모습이 떡 기특해 보였는지, 감사하게도 지나가는 곳곳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나누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의 의미와 보람이 멋쟁이들의 내면에 잘 쌓이길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임종엽 선생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르게 완쾌하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일에도 공동체 마당에는 공동체 식구들 외에 많은 분들이 오가신다. 학교와 관계된 학부모님들, 공동체가 궁금해서 오시는 손님들, 그리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오가시는 학교 강사님들이 부지런히 주차장과 운동장과 교실을 오가신다.

어린이학교는 학령 특성상 '다양한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테마수업이나 선택수업이 많고, 정교사 외에 약 스물 세 분의 강사 선생님들이 계시다.

어린이학교 강사 선생님들의 출신(?)은 먼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식구들이 계시고, 현재 학부모님이신 분들이나 예전에 학부모였던 분들도 기꺼이 귀한 재능을 나눠주신다. 그리고 여러 경로로 인연을 맺은 외부 강사 선생님들이 계시다.

어린이들의 예술 감수성을 일깨워주시는 이정희 미술선생님, 월요일마다 서울 목동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가시는 손애순 무용선생님, 어린이 도보여행에도 동행한 적이 있을 만큼 끈끈한 사이인 임미란 줄넘기선생님, 그리고 공동체 학교의 전설적인 강사이신 신하고 풍물선생님, 윤영균 목사님은 금요일 오전에는 어린이학교 역사 선생님이시고, 쟁베와 카흔을 가르치는 류지하 선생님과 아이들 댄스를 섭렵하고 계시는 전다솔 방송댄스 선생님도 이젠 어린이학교와의 제법 오랜 인연을 자랑한다.

지난 8월 말 그루터기 식구들 몇 분과 함께 서울 구로에 연극 관람을 하기 위해 갔었다. 연극 제목은 '겨울나그네-어느 배우의 에피소드'. 연극 형식과 내용 모두 난해하고 실험적이었지만 어린이학교 연극 선생님이신 승의 열 선생님이 나오셨기에 내겐 그 이유면 됐다. 늘 인자하신 표정과 경순하신 모습으로 오시는 연극 선생님의 공연을 그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죄송했기 때문에. 연극보다 연극 선생님을 본 것이 뿐듯했고 말이다.

많은 강사 선생님들이 어린이학교와 10년 안팎의 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다. 강사 선생님들께 어린이들의 건강한 에너지가 잘 전해지고, 선생님들이 공동체 마당에 발을 디디실 때마다 잔잔한 평화와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그루터기사랑방 전선희 집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말 쓰 : 미가서 3장

인 도 : 이원영 목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중동을 위해)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2. 교회 간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한공협)
 - 한국교회의 간신과 공동체 운동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 임원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 각 공동체들이 하나가 되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 지역별 방모임과 아픈 지체들을 위해
 - 새 학기가 진행 중인 공동체학교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지난 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무림리의 아침 저녁은 몹시 쌀쌀합니다. 낮밤 기온 차가 많이 나면서 목감기와 비염증 세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공동체 식구들 모두 환절기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입양도로 청소로 멋쟁이 학생들이 축석에서부터 무림리 마을 길까지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청소여서 그런지 쓰레기가 유난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공동체에서 키우는 투끼가 첫 출산을 했는데 무려 10마리나 출산했습니다. 어린이 학생들이 그 앞을 지날 때, 몹시 궁금해하면서도 조심히 다닙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진지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미소가 저절로 나옵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재훈 전도사〉